

(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)

**빌레몬서 1장.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평등하게 된다. (35~40분)**

칠판에 바울, 오네시모, 빌레몬이라고 적고, 굵은 사슬을 그린다.

- 역사속에서 사슬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?
- 사슬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?

칠판에 있는 이름들은 그들의 삶에서 사슬을 지녔던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설명한다. 학생들에게 각 사람이 가졌던 사슬을 찾아보면서 **빌레몬서 1장 1~21절을** 신속히 읽도록 한다. 학생들이 답을 찾으면, 칠판에 그것들을 적고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. (그 답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, 오네시모가 노예였다는 것,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 주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.)

빌레몬서의 소개 부분에서 적절한 정보를 들려준다.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았던 시대에 노예들의 처지는 전적으로 주인에 손에 달려 있었다고 설명한다. 사소한 잘못에도 종종 가장 잔인한 형벌이 가해졌다. **다음 설명을 읽고 생각해본다.**

“노예에 대한 법의 자세는 *servile caput nullum jus habet*라는 법령에 잘 표현되어 있었다. 해석한즉 노예에게 권리란 없다는 뜻이다. 주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이었다. 그는 노예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고문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다. ... 도망친 노예를 쫓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었다. 붙잡힌 노예는 이마에 낙인이 찍혀, 두 배의 노역에 처해졌으며, 때로는 맹수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다. 노예 인구는 대단히 많았다. 어떤 지주들은 이만 명이 넘는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다.”(마빈 알 빈센트, 신약전서의 단어 연구, 총 4권 [1900~1901년], 3:519)

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합법적으로 빌레몬은 그의 종에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?
- 그것은 그의 종교적 권리 안에 포함되는가?
- 오네시모는 인생에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그 상황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나? (그는 구주의 복음으로 개종했다.)

반 전체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**빌레몬서 1장 8~20절을** 읽는다.

- 바울은 복음의 어떤 원리를 실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했는가?
- 빌레몬이 용서를 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을 수 있는가?
-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?

학생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게 한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왜 어려운가? 그 이유는?
- 결국 여러분은 그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?

칠판에 있는 이름들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게 생각하실 것인가?

- **니파이후서 26장 33절을** 읽는다. 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가?

- 우리는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.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?
- 사회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?

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방편이라는 것을 간증한다.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잘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.